

수퍼비전은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상담자(supervisor)가 초보 또는 미숙한 상담자(supervisee)를, 상담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Bartlett, 1983; 최해림, 2003에서 재인용)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상담훈련 방법중 하나이다.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상담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그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과정들을 통해 상담자들이 양성되고 있다. 하지만 수퍼비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미약한 것이 국내의 현실적인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상담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수퍼비전에 관한 연구도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이런 축적된 연구결과를 통해 수퍼비전 평가도구가 개발되었고(Lehrman-Waterman & Ladany, 2001) 최근에는 세부적인 수퍼비전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들이 함께 진행되면서 새로운 수퍼비전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수퍼비전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다양한 주제 중에서, 수련생들의 수퍼비전 경험은 수퍼비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Hutt, Scott와 King(1983)은 수련생의 긍정적, 부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가 수퍼비전 평가 척도 개발에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수련생의 수퍼비전 경험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수련생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따뜻하고 수용적이면서 존중,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수퍼비전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촉진적이며, 비판단적인 수퍼비전 관계속에서 수련생의 불안이 감소되었고 이후 내담자와의 관계를 탐색하게 되는 과업 지향적인 행동을 하게되었다(Hutt 등, 1983). 그리고 긍정적인 수퍼비전에서 수련생들은 자신들이 느꼈던 부적절감을 나누고, 수퍼바이저로부터 지지와 수용을

받아서 자존감이 증진되는 경험을(Worthen & McNeil, 1996)한다고 했다. 또, 긍정적인 수퍼비전에서는 임상적인 훈련과 관련된 내용, 즉 적합한 기술모델의 제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법의 가르침, 피드백, 정보, 자원제공이 그 내용이었으며, 부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은 수퍼바이저가 비인간적(impersonal)이거나 수퍼비전에 집중하지 않는 등 수퍼비전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났었다(Chung, Baskin, & Case, 1998). 한편, 부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은 신뢰, 존중, 개방성이 부족하고(Hutt 등, 1983) 지지와 교훈이 부족하고 권위적이고 격이 떨어지는 경우였으며 이러한 수퍼비전은 수련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고 실수를 개방하지 못하게 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였다(Allen, Szollos, & Williams, 1986).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각 경험들이 이후에 상담이나 수퍼비전 관계, 수퍼바이저와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이에 Gray, Ladany, Walker 및 Ancis(2001)는 부정적인 경험을 역효과적인 특성으로 규정하고, 비유익하고 해로운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서 진행되어가는가에 대한 과정과 그것이 수퍼비전관계, 과정, 결과에 미친 영향, 상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수퍼바이저가 비공감적이며 수련생의 생각과 느낌을 무시하거나 요청을 거절하고 수련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역효과적인 사건으로 경험되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수퍼비전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상담자의 상담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수퍼비전 과정, 결과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역효과적인 사건경험을 수련생들이 어떻게 처리해나가는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수퍼바이저의 특성, 수련생의 특성이 어떻게 이런 역효과적인 사건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Nelson과 Friedlander (2001)는 수련생의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갈등적인 슈퍼비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관계에서는 힘겨루기(power struggle)와 이중관계(dual-relationship)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에 외국에서 수행된 슈퍼비전 경험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 슈퍼비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상담의 역사가 짧고 실제 슈퍼비전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상담자의 비율이 적다는 국내 현실을 감안해볼 때 개인수퍼비전보다 소집단수퍼비전의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소집단 슈퍼비전이 기관이나 상담센터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박재황, 김계현, 허안영, 김진숙, 1996). 소집단 슈퍼비전은 1인의 슈퍼바이저가 그다지 많지 않은 다수의 수련생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것(박재황 등, 1996)인데, 초기에는 수련생의 대인관계 스타일과 행동에 관한 자기 자각 증진, 피드백 제공 능력 향상을 위해 구성되었다. 그리고 집단 슈퍼비전에 대한 이런 개념들 때문에,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는 수련생의 자각과 정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집단과정이 소집단 슈퍼비전 연구의 주 대상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련생의 사례와 임상적인 이슈들을 토론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사례제시적인 집단 슈퍼비전이 나타났지만 후속연구들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Sansbury와 Yogev가 집단수퍼비전의 발달적 모델을 제안했지만(Brown & Lent, 1992) 그 내용과 과정에 대한 타당도가 부족하였으며 여전히 집단 슈퍼비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Prieto, 1996). Veach(2001)는 소집단 슈퍼비전에서는 개인 슈퍼비전과는 다른 독특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소집단 슈퍼비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Chung 등(1998)의 연구에서도 집단이라는 구성이 개인의 슈퍼비전 경험을 처리하는 과정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제안하면서 집단 슈퍼비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한편 국내의 슈퍼비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슈퍼비전 모델개발과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김계현, 1992; 문수정, 1999; 심홍섭, 2003)와 슈퍼바이저-수련생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이운주, 1997), 소집단 슈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변인들에 대한 연구(왕은자, 2001)가 있다. 김계현(1992)은 우리나라는 슈퍼바이저와 수련생이, 슈퍼바이저-수련생의 관계를 넘어서는 이중관계(dual-relationship)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련생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에 비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덜 민감하게 지각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덧붙여 미국과 다른 국내 수련생들의 이러한 태도를 봤을 때, 국내상황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슈퍼비전은 일종의 교육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교육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문수정(1999)의 연구에서는 수련생의 수준에 따라 슈퍼비전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슈퍼비전에서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나 느낌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Veach(2001)와 Ramos-Sanchez 등(2002)은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에서는 굳건한 관계형성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제언, 국내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슈퍼비전이 중요한 상담교육의 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과 수련생의 슈퍼비전 경험이 슈퍼비전이나 슈퍼바이저 평가, 교육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수련생들의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의 수퍼바이저가 다수(10명내외) 수련생을 동시에 지도하는 것으로 소집단 수퍼비전을 정의하고 초심상담자의 소집단 수퍼비전 경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긍정적, 부정적 경험이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스타일과 수련생의 성격특성이 수퍼비전 경험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것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양적연구의 방법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초심상담자들이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수퍼비전의 내용과 그런 경험이 이후 수퍼비전이나 수퍼비전 관계, 상담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수퍼비전 경험이 있는 대학원 재학이상, 상담경험 2년이하의 초심상담자 3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 17명이 인터뷰에 응하였다.

도구

본 연구자가 수퍼바이저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교수 1인, 상담전문가 2인과의 협의를 통해 자기보고형 검사지와 인터뷰 질문지 등을 함께 묶은 소집단 수퍼비전 경험 질문지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소집단 수퍼비전 경험 질문지

긍정경험: 경험의 내용과 해당 수퍼비전 구조에 대한 질문 / 수퍼비전 만족도 질문지(SSQ) / 수퍼비전 스타일 질문지(SSI)

부정경험: 경험의 내용과 해당 수퍼비전 구조에 대한 질문 / 수퍼비전 만족도 질문지(SSQ) / 수퍼비전 스타일 질문지(SSI)

초심상담자 개인정보: 성별, 연령, 경력관련 질문 / 성격특성 관련 질문(NEO-P-I-R의 신경증 척도) /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

수퍼비전 만족도 질문지(Supervisory Satisfaction Questionnaire: SSQ): Ladany, Hill와 Nutt(1996)가 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수퍼비전 상황에 맞게 수정, 제작한 질문지이다. 상담수련생들은 수퍼비전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들의 만족도를 4점 리커트 척도상에 표시하게 된다. 8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으면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내적합치도는 .84~.93이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 α)는 .92이었다.

수퍼비전 스타일 질문지(Supervisory Styles Inventory: SSI): Friedlander과 Ward(1984)가 제작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일련의 형용사로 된 문항을 5점척도로 평정하며, 매력도, 대인민감도, 과업지향도의 하위요인을 가지며, Cronbach α 는 .85~.89이었다. 국내에서는 왕은자(2001)의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상담심리전문가 3인이 번안작업과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3요인을 추출하여 과업지향도와 대인민감도를 사용하였다. 척도 전체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94이고, 과업지향도

와 대인민감도는 각각 .86, .8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SSI를 초심상담자 121명을 대상으로 실시, 요인분석하여 매력도 9문항, 과업지향도 11문항, 대인민감도 13문항으로 구성된 3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척도 전체의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 α)는 .91이었고, 매력도, 과업지향도, 대인민감도는 각각 .91, .87, .83이었다.

NEO-P-I-R의 신경증 척도: Costa와 McCrae (1985)가 개발한 성격검사지로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국내에서는 이승은(1997)이 변안,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고,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는 .83~.91이었다. 이 중 신경증 척도는 정상적인 성격의 한 차원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있고 어려운 상황에 큰 두려움 없이 직면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수련생의 특성이 부정적인 경험 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Gray 등(2001)의 제안에 따라서, 수련생의 부정적인 정서지각과 관련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경증 하위척도 48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 α)는 .88이었다.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질문지는 사전 예비 인터뷰 내용과 선행연구에서 탐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담전공 교수 및 상담 전문가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구성하였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문들으로써, 질문목록은 다음과 같다. (1)슈퍼비전 참석 이전의 경험(슈퍼비전에 기대나 예상, 슈퍼바이저에 대한 기대나 예상, 선입견), (2)긍정적인 슈퍼비전 경험 또는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의 내용(구체적인 상황, 그때의 느낌, 생각, 행동, 슈퍼바이저의 태도, 반응, 동료들의 태도, 반응),

(3)경험이후의 대처나 평가(개방 여부와 대처방법), (4)경험의 후속 영향들(상담에 끼친 영향, 슈퍼비전에 끼친 영향, 슈퍼바이저에 대하여 변화된 부분, 개인적으로 미친 영향), (5)경험이후의 과정(이후에 관련된 다른사건과 경험, 시간경과에 따른 재해석).

자료수집 절차

상담전공 대학원 재학생 이상의 연구대상자들에게 소집단 슈퍼비전 경험질문지를 실시하여, 총 45부를 수거하고 누락항목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33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이용하였다. 이 중 인터뷰 참여의사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확인작업을 거친 후, 긍정경험에 대해서 8명, 부정경험에 대해서 9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1명의 참가자가 두가지 경험 모두에 대하여 인터뷰하였다. 참가자들은 인터뷰에 앞서 연구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1회에 걸쳐 약 40분정도의 인터뷰에 응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의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를 사용하였다. CQR의 전체과정은 자료에서 결론이 추론되는 귀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런 추론의 과정들이 1명의 연구자가 아닌 3-5명의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다. 연구팀에서는 각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합의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이끌어내며, 이렇게 도출된 결과들은 1-2명의 감사자들에 의해 점검되고 다시 연구팀에서 재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에 관한 8사례와 부

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에 관한 9사례가 개별적으로 CQR의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평정자와 감사자

본 연구에 연구팀으로 참여한 평정자들은 연구자를 포함해서 상담과 소집단 수퍼비전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석사과정생 3명으로, 연구자와 함께 일주일에 2회 매2시간씩 진행되는 질적 연구 스터디를 4주간 참여하였으며, CQR에 대한 4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았다. 감사자는 수퍼비전 지도 경험이 있는 상담 심리 전문가 1인과 상담 전공 박사과정생 1인으로써 영역 코딩,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과정에서 평정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절차

자료준비: 연구자가 직접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긍정경험 8사례, 부정경험 9사례에 대한 축어록을 작성했다.

영역코딩(Developing Domains): 수집된 자료들의 개념적인 틀을 구성하는 작업으로, '유사한 주제에 관한 정보자료군(information cluster)'인 영역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연구자가 작성한 각 사례의 축어록을 평정자들이 개별적으로 읽고 판단하여 사례별로 영역을 결정하고, 함께 모여서 사례별 영역과 전체적인 영역 결정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쳐서 영역들이 결정되었다.

중심 개념 코딩(Construction Core Ideas):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으로, 자료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는 작업이다. 각 평정자들이 독립적으로 중심 개념을 요약한 다음, 3명의 평정자들이 모여서 영역별 중심개념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차이점은 합의의 과정을 거

쳐 결정했다.

감사과정(Auditing of Domains and Core Ideas):

2인의 감사자가 축어록과 평정팀의 영역/중심개념 합의 자료를 확인해서, 원자료가 정확한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 영역의 모든 중요한 자료가 발췌되었는지, 중심개념을 말로 표현한 것이 간결하고 원자료를 반영하는지를 점검하였다. 감사이후에 발견된 몇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평정팀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였다.

교차분석(Cross Analysis):

각 영역에 대한 중심개념들을 범주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사례별로 각 영역에서 나타난 중심 개념들이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의 범주들로 묶일 수 있는가를 확인, 범주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범주에 사례의 빈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모든 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general) 범주로 '모든'으로 표시하였고, 50% 이상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인 범주(typical)로 '전형적'으로,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변동적인(variant) 범주로 '드문'으로 분류, 표시하였다. 단지 한두 사례에서만 적용되는 범주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고 제외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과 범주에서 1사례인 경우에 제외하였다.

감사과정(Auditing of Cross Analysis):

교차분석 후, 다시 감사자가 자료를 검토하고 팀의 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역시 팀과 감사의 결정이 불일치한 경우, 다시 팀내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결 과

수퍼비전 경험과 수퍼비전 만족도, 수퍼비전 스타일, 수련생의 개인특성과의 관계

수퍼비전 경험에 따른 만족도 차이

수퍼비전 경험질문지를 통해 긍정경험을 한 수퍼비전의 만족도점수와 부정경험을 한 수퍼비전의 만족도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쌍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긍정경험을 한 수퍼비전의 만족도(M=25.94, SD=3.22)가 부정경험을 한 수퍼비전의 만족도(M=19.24, SD=4.35) 보다 더 높았으며, 이런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32)=6.99, p<.05$). 수련생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수퍼비전을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수퍼비전보다 더 만족스럽게 평가했으며, 수련생들이 수퍼비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수퍼비전 만족도에 그대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수퍼비전 경험과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스타일

긍정적으로 기억되는 경험에서의 수퍼비전 스타일과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경험에서의 수퍼비전 스타일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하위요인별로 쌍별 t검증을 실시하여 차이를 확인하였다. t검증 결과, 매력도($t(32)=5.586, p<.05$)와 대인간 민감도($t(32)=4.344, p<.05$)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과업지향도($t(32)=1.792, p>.05$)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즉, 긍정경험을 했던 수퍼바이저의 경우에는 인간적인 매력과 대인간의 민감도에서 부정경험에서의 수퍼바이저보다 더 높게 지각되었으나, 과업지향도에 있어서는 긍정경험과 부정경험의 수퍼바이저가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수퍼비전 경험 내용과 수련생의 개인특성

수퍼비전 경험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지각하는데에 수련생의 성격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정적 수퍼비전 경험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한 수련생들이 그렇지 않은 수련생들보다 부정적인 정서경험에 더 민감한가를 알아보았다. 부정경험의 영향력을 7점척도에서 5점 이상 평가한 사람들은 33명중 17명이고, 4점이하로 평가한 사람들은 16명으로 두 집단간의 NEO-P-I-R의 신경증 점수의 차이는 없었다($t(31)=-.408, p>.05$).

긍정적인 수퍼비전과 부정적인 수퍼비전의 경험 내용

긍정적인 수퍼비전 경험과 부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의 내용은 크게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각 경험이 그렇게 지각된 이유와 경험이전, 경험 상황, 경험 이후, 수퍼바이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났으나, 경험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영역들은 다르게 나타났다. 표 1과 표 2에서 각각 긍정경험과 부정경험의 영역과 범주 내용을 제시하였다.

긍정적인 수퍼비전 경험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이유: 긍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은 상담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5사례에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2번 사례에서는 '내담자를 새롭게 보게 하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내담자를 볼 수 있게 해줬으며, 내담자를 보는 내 시각자체가 딱 변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 인정과 지지를 통해 '내 식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것이 크게 벗어나는게 아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긍정적으로 지각한 경우와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표 1. 긍정적인 수퍼비전 경험

영역과 범주	빈도	영역과 범주	빈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이유		수퍼비전에서의 변화	전형적
상담에 도움 받음	전형적	배움에 대한 기대 생김	드문
상담태도의 전환	드문	두려움 감소	드문
자기인식의 폭 확장	드문	수퍼비전의 필요성 강하게 느낌	드문
인정받고 자신감 획득	드문	수퍼바이저에 대한 변화	전형적
허용적인 수퍼바이저 스타일	드문	전문성에 대한 깊은 신뢰	드문
선행사건경험		일관된 긍정적 인상	드문
상담에서 문제 발생	전형적	수련생의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	드문
상담자로서의 진로에 대한 고민	드문	실생활의 태도 변화	드문
이전 수퍼비전에서 좌절, 불만경험	드문	가치관의 변화	드문
수퍼비전에 대한 기대		수퍼바이저의 스타일 및 특성	
상담진행에 대한 점검, 확인	전형적	배려, 지지, 공감적	드문
수퍼바이저에 대한 긍정적 인상	드문	명확한 문제파악과 구체적인 지도	드문
별다른 기대 없음	드문	편안하고 신뢰로움	드문
수련생의 상태		주. 모든-100% 전형적-50% 이상 드문-50%미만	
답답하고 긴장됨	드문		
편안함	드문		
우울하고 고민스러움	드문	해도 받아들여질꺼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경험의 내용		선생님의 수퍼비전을 이끌어 가시는 스타일' 때	
수련생에게 격려, 위로	전형적	문이라고 보고한 경우가 각각 2사례에서 나타났	
내담자 이해 증진	드문	다.	
역전이 관련 자기문제 인식	드문		
상담방식에 대한 조언, 지도	드문		
수련생의 경험		경험이전: 참가자들이 보고한 긍정적인 수퍼	
명료한 이해와 통찰	전형적	비전은, 해당 경험이전에 관련된 다른 기타의 경	
인정, 수용, 지지	전형적	험들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상담에 관련된 내용	
사례에 대한 부담, 책임감	드문	들이 가장 많았고, 다른 수퍼비전에 관련된 일,	
상담에서의 변화	모든	수련생의 일신상의 경험과 관련된 것과 개인적	
내담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전형적	인 고민이 많았던 경험과 수퍼바이저에게 지지,	
상담에 대한 자신과 여유	전형적	격려 받은 경험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선행	
내담자에 대한 태도 변화	전형적	경험들이 긍정적인 수퍼비전 경험과 서로 연결	
상담관계 개선	드문	되어서 참가자들에게 기억되어 있음을 확인할	
상담자로서의 자세, 인식의 변화	드문	수 있었다. 8번 사례의 경우, 이전 수퍼비전 이	
구체적인 전략사용	드문	후에 '내가 이렇게 밖에 반응을 못하나 싶어서	
		처참한 기분,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이 우울하고	

좌절감을 많이 느꼈었고, 그걸 억눌러왔다가 이후(긍정적인 경험의) 슈퍼비전 시간에 폭발한 거'라는 보고를 통해서 이전의 좌절스러웠던 슈퍼비전 경험이 해당 슈퍼비전의 긍정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키는 선행사건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슈퍼비전에 참석하기 전에 나름대로 어떤 기대와 예상을 가지고 참석하게 되는데, 상담 진행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 확인 받고 싶어하는 경우와 해당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편안하고, 부드러운 스타일, 신뢰로운'과 같은 긍정적인 인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고, 별다른 기대 없이 참석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수련생에 대한 지지를 기대하고, 내담자에 대한 탐색에 도움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경우도 있었고,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강하기만 할 것 같은'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이런 기대나 예상과 함께 수련생들은 긍정적인 슈퍼비전 참석 이전에 사례와 관련해서 긴장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거나,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에 대해 부끄럽고 자신감 없어 긴장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또 이전에 받은 슈퍼비전 때문에 우울하고 고민에 빠져있던 상태였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으며, 반면에 뭔가를 배운다는 생각에 편안하고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슈퍼비전에 임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슈퍼비전 이전에 발생한 수련생들의 경험들이, 긍정적인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3번 사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수퍼비전 들어가기 전에 상담이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 내담자의 변화도 못 보고 있었고. (선행사건 경험-상담에서 문제 발생) 슈퍼비전 시작 전에 이런 답답한 마음

과 내담자의 변화를 모르겠다. 이런걸 언급했죠. (수련생의 심리적 상태-답답하고 긴장됨) 나름대로 절박했던 거를 검증을 받고 싶었고, 내가 현재 느끼는게, 조금함이나 내담자의 지지부진함이 정말로 그런것인지 아니면 나만 그런 것인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수퍼비전에 대한 기대, 예상-상담진행에 대한 점검, 확인)

경험 상황: 초심상담자들의 긍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은 사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주로 상담진행과 관련해서 도움 받은 내용들이 많았다(내담자 이해증진, 역전이와 관련된 자기문제 인식, 상담방식에 대한 조언, 지도). 그 외 슈퍼바이저의 허용적인 슈퍼비전 진행방식과 슈퍼비전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다는 내용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경험과정에서 수련생들은 사례진행이나 내담자에 대해서 '스님들이 도를 깨우칠 때, 하나씩 스쳐가는 것' 같은 「명료한 이해와 통찰」을 경험하고,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격려받고 지지받는 느낌을 받았다. 또 한편으로는 슈퍼비전에서 받은 피드백이나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증진됨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슈퍼비전중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앞으로 이렇게 해 봐야겠다는 거랑, 앞으로 잘될까 하는 또하나의 두려움'이 들면서 「사례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감」을 느낀다고 보고한 경우도 2사례 있었다. 그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되어서 내담자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역전이와 관련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어서 한 순간 좌절감이 느껴지기도 했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경험 이후의 변화: 긍정적인 경험은 그 이후

에 상담, 수퍼비전, 수퍼바이저 그리고 수련생 개인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다. 모든 사례에서 긍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이 이후 상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했는데, 내담자와의 관계, 상담전략, 상담자의 자세 및 태도변화 등 다양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단순히 해당 사례에 대한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몇가지의 변화들이 연속적으로 같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수퍼비전에서 나온 말이, 정서적으로 좀더 다가섰어야하는 거였는데 좀더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질문도 하고. 근데 나는 그랬었거니와 나 혼자 지레짐작으로 넘어갔었거든. 내담자가 어땠을까가 계속 의문이었는데, 그냥 지나쳤던걸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그때 이랬던게 잘 이해가 가지않는데 이야기해줄 수있느냐 한번 더 물었더니 내담자가 고백을 했지. 허걱~ 그당시에는 내담자가 자기가 준비가 안되었어서 얘기를 안했다고 표현은 했지만. 그때 상황들이 이야기되어서 내가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게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단서였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내담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런거였나. (구체적인 전략 사용, 내담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 - 7번사례)

또, 긍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은 이후에 수퍼비전 자체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끼쳐서, 수퍼비전에 참여할 때 '뭔가 더 배울수 있을 것' 같고, '가면 뭐던 될 수 있을 것 같은 보물 창고가 생긴'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수퍼비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고, 수퍼비전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낀 경우가 있었고, 소집단에 대한

친밀감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은 해당 수퍼바이저에 대한 인상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수퍼바이저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더 강하게 갖게 되었으며(3사례), 처음부터 가졌던 수퍼바이저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역전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은 수련생의 사적인 부분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수련생의 실생활에서의 태도변화(2사례)나 가치관의 변화(2사례)를 가져오게 되었다.

수퍼바이저의 스타일, 특성 및 수퍼비전 분위기: 초심상담자들은 자신들의 긍정경험에서 만난 수퍼바이저들에 대해서 대략 배려, 지지, 공감적이라고 지각했으며, 명확한 문제파악과 구체적인 사례지도를 한다는 보고와 편안하고 신뢰롭다고 보고가 있었다.

부정적인 수퍼비전 경험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이유: 초심상담자들은 수퍼바이저의 스타일 '수퍼바이저의 강렬한 완강한 판단적인 태도' 때문에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끄럽고 좌절스럽고 속상한 부정적 정서 경험 때문에 부정적으로 지각된 경우, 수련생이 가진 수퍼비전에 대한 예상이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또, 비난받고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험 이전: 초심상담자들은 부정적인 수퍼비전 경험 이전에, 수퍼비전에서 지지와 격려를 예상하면서, 한편으로는 평가에 대한 불안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2.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

영역과 범주	빈도	영역과 범주	빈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이유		대처내용	
부정적인 슈퍼바이저 스타일	드문	적극적인 대처	전형적
수련생 고려없는 일방적 지도 스타일	드문	동료들에게 객관적 피드백 요청	드문
단정·평가적인 슈퍼바이저 스타일	드문	동료들과 불만 나눔	드문
수련생의 기대에 어긋남	드문	다른 전문가에게 도움	드문
부정적인 정서경험	드문	소극적인 대처	전형적
슈퍼비전에 대한 기대		혼자서 정리하기	드문
지지와 격려	드문	시간흐름에 따라 무더짐	드문
평가에 대한 불안	드문	생각하지 않음	드문
상담진행에 대한 점검, 확인	드문	상담에서의 변화	
슈퍼바이저에 대한 부정적 인상	드문	상담태도, 반응의 변화	전형적
별다른 기대 없음	드문	피드백내용을 의식한 표면적 변화	드문
수련생의 상태		피드백내용을 수용한 실제적 변화	드문
평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드문	상담에서 위축되고 부담감 가짐	드문
경험의 내용		내담자 관계 악화	드문
평가와 비난	전형적	내담자와 관계 개선	드문
수련생에 대한 비난	드문	변화 없음	드문
상담전략에 대한 단정적 평가	드문	슈퍼비전에서의 변화	전형적
내담자에 대한 단정적 평가	드문	부정적·가기싫어지고 눈치봄	드문
성격적인 단점을 부각시킴	드문	긍정적·여유로고 적극적 참여	드문
슈퍼비전에 대한 기대 좌절됨	드문	슈퍼바이저에 대한 변화	전형적
수련생의 경험		전문가로서의 신뢰감 저하	드문
무시당하고 이해받지 못함	드문	인간적인 호감 저하	드문
비난받는 느낌	전형적	전문가적 신뢰만 유지	드문
슈퍼바이저에 대한 원망 미움	드문	경험에 대한 평가	전형적
당황하고 놀람	드문	피드백내용자체에 대한 재해석	드문
반발심	드문	슈퍼바이저 태도에 대한 재해석	드문
위축, 좌절감	드문	자신에 대한 문제를 인식	드문
화나고 불쾌함	드문	슈퍼비전에 대한 바람	
동료들의 반응		허용적이고 지지적인 라포형성	전형적
별다른 반응 없음	전형적	수련생의 발달수준, 눈높이 고려	드문
슈퍼바이저에게 달려감	드문	슈퍼바이저의 스타일, 특성	
수련생 위로	드문	평가적이고 단정적인 스타일	드문
각자의 경험 토로	드문	일방적으로 지시, 교육하는 스타일	드문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음	드문

주. 모든-100% 전형적-50% 이상 드문-50%미만

가지로 상담에 대한 점검, 확인받고자 하는 기대를 가졌으며 내담자에 대한 이해증진을 기대하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별다른 기대 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2사례에서 나타났고,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거나, '강하고 간간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3사례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슈퍼비전 이전의 심리상태에 대한 보고의 경우, 긍정적인 경험의 경우에는 8사례중 7사례가 이전의 심리 상태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부정적인 경험의 경우에는 4사례에서 이전의 상태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 부정적으로 기억된 슈퍼비전에 참석하기 이전 심리적인 상태는 평가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 경우가 4사례에서 나타났고, 부끄럽고 자신없고, 답답한 심정으로 참여했다는 경우가 1사례에 있었다.

경험상황: 초심상담자들의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은 「평가와 비난」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수련생의 성격적인 단점을 부각시켰다던가 기대좌절의 내용이 나타났다. 「평가와 비난」은 '내담자에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다루었는데, 슈퍼바이저는 (수련생의)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그런걸 물어보거나 그런 주제에 집중한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상담전략에 대한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내담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슈퍼바이저가 이런거다 라고' 「내담자에 대한 단정적인 평가」을 하는 경우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동안 수련생들은 다양하고 강렬한 가지로 상담에 대한 점검, 확인받고자 하는 기대를 가졌으며 내담자에 대한 이해증진을 기대하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별다른 기대 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2사례에서 나타났고, 슈퍼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으며, 몇몇 참가자들은

인터뷰 상황에서도 그때의 경험이 생생하다고 보고하였다.

너무 좌절하고 당황했던거 같애. 슈퍼바이저가 원망스러웠어. 그때 당시에는 왜 꼭 저렇게까지 심하게 하시나.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애썼는데 그것은 다 묵사발 되고 잘못된 것만 막 지적되는 거 같아서 억울하고. (좌절감, 무시당함. 당황함. 슈퍼바이저에 대한 원망 - 4번사례)

이런 경험 하에서 함께 슈퍼비전에 참석하는 동료들은, 경험을 공유하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거나, 슈퍼바이저의 강한 의견 제시 때문에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슈퍼바이저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따라가서 내담자를 비난,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수련생을 위로하고, 자신의 경험을 같이 나누는 지지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경험 이후 - 대처내용: 위의 부정적인 경험 이후에 수련생들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대처방법들을 찾게 된다. 적극적으로 주위 사람들이나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취하기도하고, 혼자서 생각하거나 그냥 잊어버리거나 생각하지 않으려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객관적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것들을 비교' 해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구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동질감을 느끼기위해서, 나를 더 많이 위로'하고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나누면서 불만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슈퍼바이저, 자신의 상담자 같은 다른 전문가에게 조언

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해당 슈퍼바이저에게 자신의 감정을 개방했던 경우가 유일하게 1사례에서 나타났었다. 이 경우 수련생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을 개방했고, 슈퍼바이저가 이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불편함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고했다.

경험 이후 - 변화: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도 긍정적인 경험과 마찬가지로 이후에 상담이나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긍정적인 경험은 상담에서의 변화가 모든 사례에서 나타났지만,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은 상담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기분만 나쁘고, 내담자에 대한 이해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단지 내담자에 대한 평가만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진행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경우와 ‘슈퍼비전 내용이 너무 일반적으로 흘러 해당 사례의 진행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편, 상담에서의 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었다. 1번 사례의 경우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 이후에 슈퍼비전에서 받은 피드백 내용과 슈퍼비전 자체를 의식하게 되어서 표면적으로는 내담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으나, 위축되고 자심감을 잃은 초심상담자가 상담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어졌고 이것은 내담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4번 사례에서는 슈퍼비전에서 받은 피드백 내용을 의식해서 내담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다르게 반응했으나, 이것이 실제로 내담자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었다.

그 뒤로 내가 내담자의 말을 얼마나 열심히 듣고,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따라갈려고

너무 애를 써서, 내가 너무 질문을 안한거야. 그전에는 질문을 많이 하다가 슈퍼비전 이후에는 내담자가 뭘 원하고 있는지 내담자가 뭘 나한테 말할려고 하는지를, 그 피드백 내용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들었어. 오히려 부작용처럼. 나중에는 내담자가 자기말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못 느낀거 같애. 상담에 와서 지난 일을 얘기하면 다시 그 감정에 휘싸여서 너무 힘들다, 상담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던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편하게 하고 감정도 드러내고. (피드백을 의식한 표면적 변화. 내담자와 관계 개선)

또, 슈퍼비전 이후 기존의 상담스타일이나 반응을 변화시킴으로써 상담진행 방향이 전환되는 계기가 된 경우도 있었고, 상담스타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서 자신의 상담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슈퍼비전 경험이 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례에는 도움을 주었던 경우가 9사례중 3사례에서 나타나서, 수련생들이 자신이 슈퍼비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하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상담에 연결시키지 않고 분리시키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 이후에는 슈퍼비전에 가기 싫어지고 참석하더라도 눈치를 보게 되었다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슈퍼비전에 참여하고, 이미 부정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난이나 부정적인 느낌에 담담해져서 여유가 생긴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에 대해서는 ‘존중감이 떨어지고 제대로 슈퍼비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전문가로서의 신뢰 저하」된 경우와 「인간적인 호감 저하」된 경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퍼바이저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경험 이후 - 평가와 바램: 긍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의 경우, 상담이나 수퍼비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후의 경험과정이 정리되지만, 부정적인 경험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평가의 단계가 5사례에서 나타났으며, 이런 부정적인 수퍼비전 경험 이후에 수련생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나은 수퍼비전을 위한 바램을 나타내었는데, 전체 9사례 중 8사례에서 수련생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초심상담자들이 수퍼비전에서 바라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강점을 찾아주거나 격려를 해주는 거는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5번사례).

수퍼바이저라면 그 사례를 제대로 보려면, 물론 그 사례 속에도 나오고 보여지겠지만 그걸 좀더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수퍼바이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파악, 상담 속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문제도 봐주는 거. 수퍼바이저의 욕구, 바라는 바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것에 맞추어서 수퍼바이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8번사례).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저한테는 어쨌든 선생님이고 전문가고. 취약한 상황인데 그 선생님은 강자고 나는 약자고 그런 거고. 이런 관계가 수평적이지는 않으니깐. 뭔가 한쪽이 배우고 의지하는 입장이니깐. 슈퍼바이저가 그런 것도 같이 의식해줬으면 알고 있어 줬

으면. 훨씬 좋았을걸 그런 생각을 하지(3번사례).

수퍼바이저의 스타일, 특성: 부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에서 경험된 수퍼바이저는 평가적이고 단정적인 스타일이 4사례, 일방적으로 지시, 교육하는 스타일이 3사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2사례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수퍼비전과 부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의 과정

특정한 수퍼비전 경험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지각된 이유에 따라서 경험의 성격이 결정되고, 각 경험은 경험 상황 자체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이전의 경험과 이후의 경험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의 경험으로 기억되어 있었다(그림 1. 참조) CQR결과에서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각 경험의 전형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긍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의 전형적인 경로

초심상담자들은 특정 수퍼비전 경험이 긍정적으로 기억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담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이들은 긍정적인 수퍼비전 경험 이전에 이미 상담장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상담진행에 대해서 점검, 확인 받고 싶은 기대와 예상을 가지고 수퍼비전에 참석했다. 그리고 수퍼비전에서 격려와 지지를 받고 내담자,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상담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상담과 관련되어서 수퍼비전에서 도움받은 내용은 이후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변화를 가져왔는데, 상담자의 태도나 의식 변화, 내담자와 관계개선등의 상담진행의 좀더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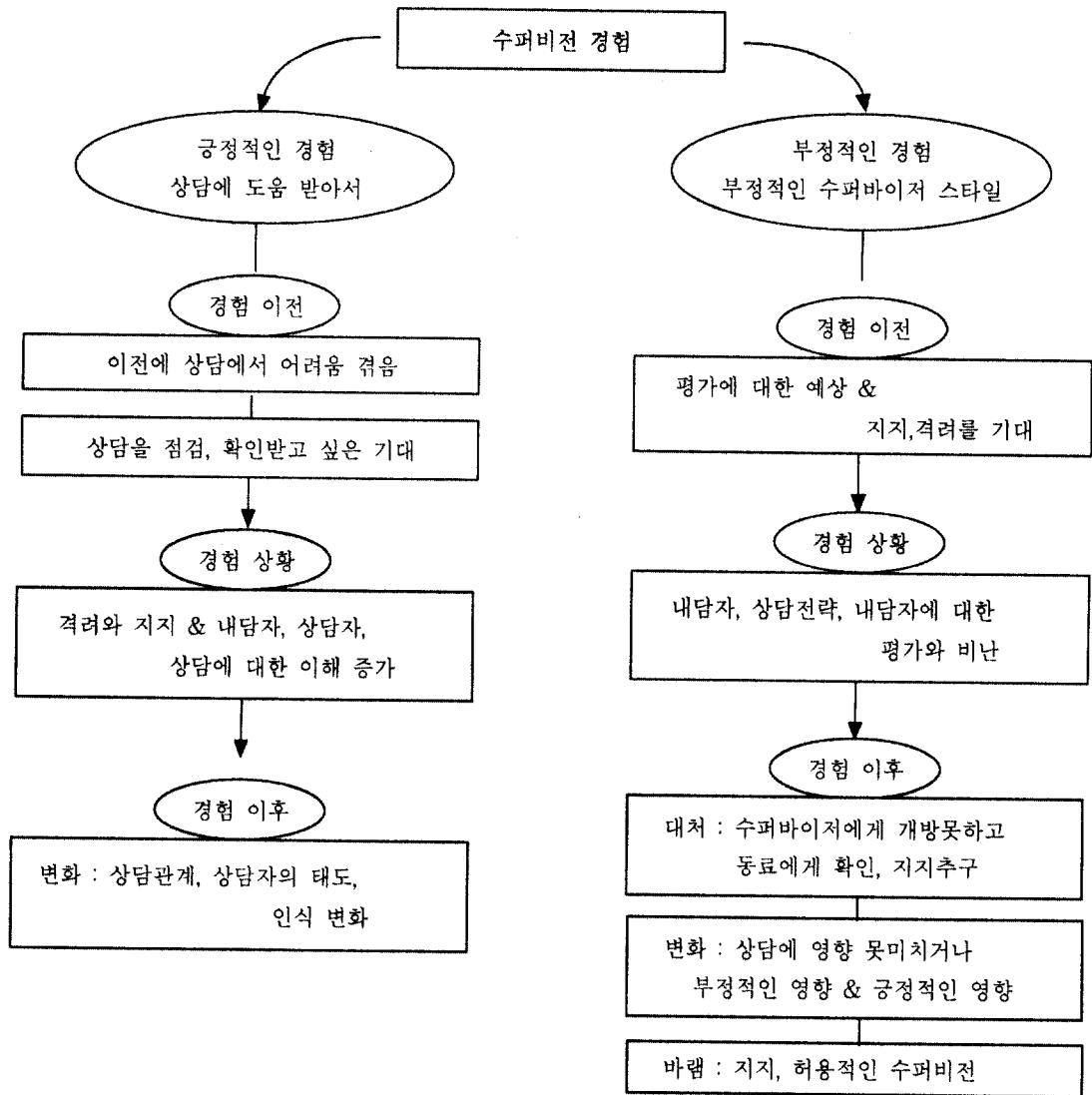


그림 1. 긍정적,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의 전형적인 경로

따라서 긍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은 상담진행에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며, 상담을 시작하는 초심자들에게 상담자로서의 성장에 기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의 전형적인 경로
부정적인 경험은 일방적이고 평가, 단정적인 슈퍼바이저 스타일 때문에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슈퍼비전에 참석하기 전에 슈퍼비전이 가지는 교육, 평가적인 측면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그로 인

해서 불안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어느정도 격려와 지지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경험하게된 슈퍼비전은 지지와 격려라는 기대와는 달리 평가와 비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내용은 상담전략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 대한 단정적이고 부정적인 평가와 상담자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 슈퍼바이저 스타일 때문에 부정적으로 지각된다는 보고와 연결시켜본다면 이것은 평가와 비난의 내용자체보다는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전달했는가에 따라서 경험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경험 속에서 초심 상담자들은 다양하고 강렬한 부정적이 정서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대처방법들을 찾아나서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슈퍼바이저에게 직접 개방하지 못하고, 주위의 동료들을 객관적 판단이나 지지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처과정들이 진행되는 동시에, 상담이나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지각에 변화를 가져왔다. 상담에서는 슈퍼비전이 내담자 이해나 상담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상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와 슈퍼비전을 의식해서 내담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상담이 부담스러워져서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슈퍼비전 이후의 상담태도 변화가 내담자를 편안하게 만들어 상담진행에 도움을 주었던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은 수련생이 경험 내용을 어떻게 수용해서 상담에서 적용하는가 또 내담자가 수련생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좀더 다양한 상호작용을 거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 이후에는 슈퍼비전이 좀더 허용적이고 지지적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의 전형적인 경로들을 비교해 보면, 두 경험은 단순히 반대되는 상황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과정과 내용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초심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소집단 슈퍼비전에서는 상담진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가 긍정적인 경험으로 지각되었으며, 평가, 단정적이고 일방적인 슈퍼바이저 스타일로 인한 평가적이고 비난적인 슈퍼비전 내용이 부정적인 경험으로 지각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의 소집단 슈퍼비전 경험에 관하여 양적, 질적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참가자들은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내용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평가, 단정적이고 일방적인 슈퍼바이저 스타일을 경험했을 경우를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로 나타났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부정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비전이 상담에 도움을 받고, 수련생을 교육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긍정적인 경험의 경우에는 슈퍼비전의 원래 목적이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부정적인 경험의 경우 슈퍼바이저의 스타일에 의해서 슈퍼비전이 부정적으로 지각되었고,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슈퍼바이저 스타일이 초심상담자의 슈퍼비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슈퍼바이저의 스타일과 경험내용에 관한 양적연구에서, 부정적인 경험의 슈퍼바이저는 대인민감도와 매력도에서 긍정적인 경험의 슈퍼바이저보다 더 낮게

지각되었고 과업지향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각 경험에서 수련생들이 보고한 슈퍼바이저의 스타일을 비교해보면, 경험에 따라 다르게 지각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련생들이 보고한 슈퍼비전에 대한 바램에서도 좀더 지지적이고 허용적인 슈퍼비전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동일한 피드백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떤 스타일의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수련생들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지며, 수련생들의 입장에서는 피드백의 내용보다는 전달하는 슈퍼바이저의 스타일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각 경험의 내용들을 정리해 봤을 때, 국내에서 초심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슈퍼비전에서는 실제 상담사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중심을 이루면서 동시에 슈퍼바이저가 지지, 허용적인 스타일로 슈퍼비전을 진행할 때 효과적인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수련생들의 만족도가 증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련생의 입장에서 평가된 긍정적인 슈퍼비전 경험과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은 더 나아가 내담자와의 상담과정 및 상담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인 경험에서는 슈퍼바이저의 태도나 상담, 내담자에 대한 태도를 수련생이 수용해서 자신의 상담에 그대로 적용하고 이것이 긍정적인 상담성으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특히 초심상담자라는 대상의 특성에 맞게 이들 슈퍼비전 경험이 상담이나 상담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 수 있어서 슈퍼비전의 효과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부정적인 경험의 경우,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상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슈퍼비전이 의식되어서 오히려 상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들은, 부정적인 슈퍼비전이 초심상담자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

도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물론 상담 장면은 일차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이 상담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슈퍼비전이나 슈퍼바이저에 의한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내담자 보호라는 슈퍼비전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슈퍼비전 경험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상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연결되지 않는 보완적인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each(2001)는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에서 소집단 슈퍼비전의 경우 소집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독특한 역효과사건들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료나 집단적인 과정과 관련되어서 독특하게 나타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은 따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나라 소집단 슈퍼비전에서는 집단의 역동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왕은자(2001)의 제안에 비추어 볼 때, 소집단 슈퍼비전이라 하더라도 슈퍼바이저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슈퍼비전과는 달리, 수련생이 경험한 동일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료들의 존재는, 수련생이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에 대처하고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이 해당 슈퍼바이저에게는 개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바이저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상담에 영향을 주지 않게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없고 그런 만큼 동료들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초심상담자인 수련생이 전문가인 슈퍼바이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조절 할 수 있는 영향력은 가지지 못하고 슈퍼바이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

므로 소집단이 어떤 방식과 관계로 구성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며, 집단 구성원들간의 유대와 친밀함이 부정적인 수퍼비전의 영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완충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지 못했던 수련생들의 수퍼비전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서 좀더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었고 수련생들이 바라는 수퍼비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연구의 결과표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초심상담자들이 어떤 때에 수퍼비전에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상담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데, 이런 결과들이 초심상담자의 수퍼비전을 진행하는 수퍼바이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수퍼비전 연구의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한다. 첫째, 김계현 (1992)은 우리나라 수련생들 태도와 미국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서 이런 태도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경험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차이를 명확하게 탐색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수퍼비전에 대한 수련생의 태도와 관련해서 좀더 연구가 진행되어서 문화간 차이측면에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행된 양적연구의 경우 참가자의 숫자가 제한적인 관계로 좀더 많은 초심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질적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수퍼비전 내용과 긍정적인 수퍼비전 내용을 목록화해서 초심상담자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런 경험들을 가지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이후의 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담자 발달수준에 따라서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수퍼비전의 내

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도 상담자 발달수준에 맞는 수퍼비전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소수의 연구대상자를 상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 내용을 초심상담자 대부분이 경험하는 내용으로 일반화하여 볼 수는 없다. 또, 질적연구에서 복수의 평정자들과 감사자들이 개인적인 편향과 선입견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느정도 주관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참고문헌

- 김계현 (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수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4(1), 19-53.
- 문수정 (1999).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재황, 김계현, 허안영, 김진숙 (1996). 청소년 상담 수퍼비전.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심홍섭 (2003). 상담자 발달단계를 고려한 상담수퍼비전 모형. 상담및심리치료학회 동계학술연수 자료집.
- 왕은자 (2001). 소집단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승은 (1997). NEO-P-I-R 성격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예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윤주 (1997). 상담수퍼비전의 과정과 성과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해림 (2003). 수퍼비전,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지.

- 상담및심리치료학회 동계학술연수 자료집.
- Allen, G. J., Szollos, S. J., & Williams, B. E. (1986). Doctoral students' comparative evaluations of best and worst psychotherapy supervis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7*, 91-99.
- Brown, S. D., & Lent, R. W. (1992).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NY: John Wiley & Sons.
- Chung, Y. B., Baskin, M. L., & Case, A. B. (1998). Positive and negative supervisory experiences reported by counseling trainees. *Psychological Reports, 82*, 762.
- Costa, P. T.,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Friedlander, M. L., & Ward, L. G. (198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upervisory Style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41-557.
- Gray, L. A., Ladany, N., Walker, J. A., & Ancis, J. R. (2001). Psychotherapy trainees' experience of counterproductive events in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371-383.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utt, C. H., Scott, J., & King, M. (1983). Phenomenological study of supervisees'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0*.
- Ladany, N., Hill, C. E., Corbett, M. M., & Nutt, E. A. (1996). Nature, extent, and importance of what psychotherapy trainees do not disclose to their supervis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10-24.
- Lehrman-Waterman, D., & Ladany, N. (2001).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Process within supervision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2), 168-177.
- Magnuson, S., Wilcoxon, S. A., & Norem, K. (2000). A profile of lousy supervision: experienced counselors' perspective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9*, 189-202.
- Moskowitz, S. A., & Rupert, P. A. (1983). Conflict resolution within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Professional psychologist: research and practice, 14*(5), 632-341.
- Nelson, M. L., & Friedlander, M. L. (2001). A close look at conflictual supervisory relationships: the trainee'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384-395.
- Prieto, L. R. (1996). Group supervision: still widely practiced but poorly understood.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5*, 295-307.
- Ramos-Sanchez, L., Esnil, E., Goodwin, A., Riggs, S., Touster, L. O., Wright, L. K., Ratanasiripong, P., & Rodolfa, E. (2002). Negative supervision events: effects on supervision satisfaction and supervisory allia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3*(2), 197-202.
- Worthen, V., & McNeil, B. W. (1996).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f good supervision ev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25-34.
- Veach, P. M. (2001). Conflict and counterproductivity in supervision-when relationships are less than idea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396-400.

원 고 접 수 일 : 2003. 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3. 8. 18
 계 재 결 정 일 : 2003. 9. 5

Research of Novice Therapists' Experience in Group Supervision

Seung-Eun Lee

Nam-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novice therapists' experiences of group supervision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 The relationship among positive and negative supervision experiences,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supervision, perceived styles of supervision, and the characters of novice therapists was studied by means of a quantitative metho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supervision was higher when one had a positive experience during supervision than when he or she had a negative experience. They also showed that those with a positive experience with supervision perceived the degrees of attractive and interpersonally sensitive- the lower factors of supervision style criteria to be higher than those with a negative experience. Furthermore, there appeared to b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experiences regarding the degree of task oriented. Eight cases of positive supervision experiences and nine cases of negative experiences were collected through an interview, and analyzed by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By doing so,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positive and negative supervision experiences of the novice therapists, and their impact on, and changes in, the counseling, supervision, and perceptions of supervisor after these experiences. The typical process of positive experience are as follows: the novice therapists experienced problems in counseling and motivation, expectation of problem solving was satisfied in supervision. And then this experience influenced on counseling and growth of counselor. The typical process of negative experience are as follows: the novice therapists anticipated evaluation in supervision and expected supporting, encouragement by supervisor. But expectation of supporting wasn't satisfied, anticipation of evaluation strengthened. And this experience negatively or positively influenced on counseling and perception of supervisor. This study suggested a few points to discuss based on the results described abov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ome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group supervision. novice therapist. supervision experiences.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